

일본 오사카 청년여성농업인 영농실태와 JA이즈미노 사례가 주는 시사점

이향미*

*한국농어촌공사 농어촌연구원 책임연구원

e-mail : yihyangmi@ekr.or.kr

Implications from the Farming Status of Young Women Farmers and the JA Izumino in Osaka, Japan

Hyangmi Yi*

*Korea Rural Community Corporation, Senior Researcher

요 약

일본 오사카는 농지 경영 면적이 농가당 0.36ha에 불과하지만, 고수익형 도시농업이 발달한 지역이다. 따라서 오사카의 농업은 적은 농지에서도 높은 수익을 얻을 수 있는 농산물들이 많이 재배되고 있어 본 연구에서는 오사카를 사례 지역으로 선정해, 청년여성농업인의 영농실태와 JA이즈미노의 주요 사업 등을 조사하였다. 일본의 여성농업인 대상 정책과 사례분석 결과를 요약하고 시사점을 제안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농업경영 여성을 위한 향후 과제에는 남녀 공동 참여, 여성을 중요한 역할로 인식할 필요가 있다. 이를 위해 가족경영협정제도 이용도 고려할 수 있다. 둘째, 생산력 측면에서는 작지만 농촌 유지를 위해 중요하다. 작은 규모 재배한 농작물 판매 가능 하도록 직매장이 중요하다. 셋째, 여성농업인의 영농 지역 특성을 적극적으로 활용할 필요가 있다. 오사카 청년여성농업인들은 도시농업이라는 특수한 환경 활용하고 있다. 따라서 우리나라 여성농업인이 경영하고 있는 농장은 대규모의 농장과 소규모의 체험 농장 등으로 구분하고, 소규모 체험 농장의 확대·보급을 통해 농촌지역으로 생활(관계)인구 유입도 가능할 것으로 사료된다.

1. 서론

지난 20년 간 우리나라 농가인구는 42.6% 감소했고, 일본은 같은 기간 동안 37.5% 감소했다. 한편 우리나라 농가인구 중 여성농업인 비중은 2000년 51.1%에서 2019년 51.0%, 2022년 50.6%로 감소하고 있지만, 여전히 여성농업인은 전체 농업인의 약 1/2를 차지하고 있다. 반면 일본 여성농업인 비중은 2000년 47.5%에서 2019년 40.0%로 매년 감소하고 있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우리나라와 농업 여건이 유사한 일본의 여성농업인 관련 연구 동향을 살펴보고, 여성농업인 대상 경영 참여 확대 방안을 모색하였다.

일본에서는 여성농업인의 역량 형성 및 학습 기회에 대해 비농업 분야의 취업 경험이나 여성농업인의 네트워크 구축, 경영 참여 촉진을 분석한 연구(原(福与), 2009), 영농경력에 리더층의 경력 형성과정과 여성농업경영주의 경영과제 관점에서 분석된 연구가 수행되었다(原, 2010 ; 原西山, 2015). 原西山(2015)은 여성농업인 과제를 자산, 체력, 농업기술, 지역사회 내 네트워

크, 가사 육아 부담으로 구분하고, 여성농업경영주가 이러한 과제를 영농경력에 경영형태 특징에 따라 극복하고 있는 현황을 분류하였다. 따라서 여성농업인의 경영참여는 본인의 의지·의욕 뿐만 아니라 역량 형성 및 학습 기회, 농업경영의 변화, 가족관계 등 다양한 요인에 의해 영향을 받는다. 佐藤真弓(2021)은 여성농업인의 경영참여 모습은 일률적이지 않기 때문에, 여성농업인의 경영참여란 어떤 상태를 의미하는지, 어떤 조건일 때 경영참여가 이루어질 수 있는지, 그리고 경영참여에 대한 개념의 재검토가 필요하다고 제안하였다.

이러한 맥락에서 본 연구에서는 일본 여성농업인 대상 주요 정책과 도시농업의 특징이 있는 오사카 지역 청년 여성농업인들 대상으로 영농 실태와 JA이즈미노의 농산물 판매 실태 등을 살펴보고, 그리고 일본 여성농업인 정책과 사례를 종합해 우리나라 여성농업인 대상 정책 및 신규 사업 발굴 등을 제안하였다.

2. 일본 여성농업인 대상 주요 정책과 오사카

농업 특징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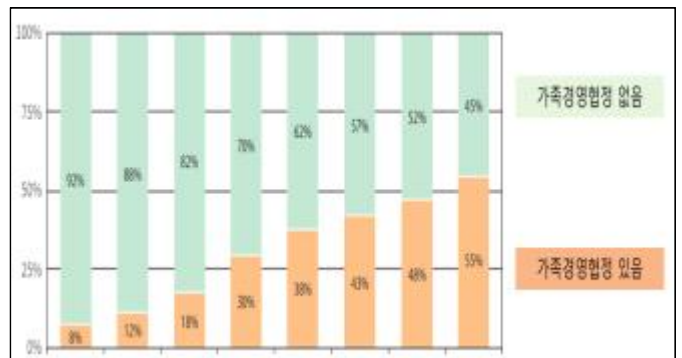
2.1 일본 여성농업인 지원 대책과 가족경영협정

일본의 연도별 여성농업인 지원 대책은 다음과 같다. 1988년 농산어촌 여성의 날 제정(3.10), 1992년 새로운 농산어촌의 여성, 1995년 농림수산성 가족경영협정의 보급 촉진에 관한 통지 발행, 1999년 남녀 공동참여 사회 기본법 제정, 식량농업농촌기본법에서 남녀 공동참여 사회 추진 규정 등이다. 그리고 여성농업인에 대한 직접적인 지원은 미래의 농업 추진과 여성의 노동 환경 정비 및 활약 강화 사업, 기구 집적 지원 사업으로 구분할 수 있다. 첫째, 여성이 바꾸는 미래의 농업 추진 사업은 지역의 리더가 될 수 있는 여성 농업 경영자의 육성, 여성 그룹의 활동, 여성이 일하기 쉬운 환경 만들기, 여성 농업자의 활약 사례의 보급 지원한다. 둘째, 여성의 노동 환경 정비·활약 강화 사업은 여성이 일하기 쉬운 환경의 정비(간이한 개수나 리스 등에 의한 남녀별 화장실 등의 확보, 지역의 여성 농업자 그룹의 활동 등을 지원·노동 환경 확보 체제 강화 사업 산지의 농업 경영체 등으로 구성 하는 지역 협의회 등에 의한 노동력 확보를 위한 취업 조건 개선 등의 대처를 지원한다. 이것은 농업 경영체가 설정하는 취업 조건 개선 사항으로서 여성이 일하기 쉬운 환경 만들기 이바지하는 대처를 지원하는 것이다. 셋째, 기구 집적 지원 사업은 유희 농지의 소유자 등의 이용 의향 조사, 소유자 불명 농지의 권리 관계 조사, 농지 정보나 농지의 임대차 사업 중 여성 농업 위원의 등용 촉진 및 조직화를 위한 활동을 지원한다.

한편 일본은 여성이 주체의 대처의 경우 등에 배분 포인트가 가산된다. 일례로 경영 계승·발전 등 지원 사업 중 경영 계승·발전 지원 사업은 지역계획에 있는 경영체 등의 후계자가 경영 계승 후의 경영 발전에 관한 계획을 책정하고, 동 계획에 근거한 대처를 시정촌과 일체가 되어 지원하는데, 채택시 여성이 주체의 대처를 하고 있는 경우에 배분 포인트를 가산한다. 농지 이용 효율화 등 지원 교부금은 지역이 목표로 하는 장래의 집약화에 중점을 둔 농지 이용의 모습의 실현을 위해서 목표 지도에 자리매김된 자가 경영 개선에 임할 경우, 필요한 농업용 기계·시설의 도입을 지원함. 여성이 주체의 대처를 하고 있는 경우에 배분 포인트를 가산한다. 농산어촌 진흥 교부금은 저출산 고령화·인구 감소가 진행되는 농산어촌에 “일”, “생활” “활력”, “토지 이용”의 관점에서 농촌 진흥 시책을 종합적으로 추진함. 이것은 인구의 창출·확대와 지역 공동체 유지, 농산어촌의 활성화 및 자립화를 목적으로 함. 채택시에 여성의 참가 촉진을 도모하고 있는 계획이나 여성의 활약 추진의 기본 방침에 근거한 대처를 실시하는 경우에, 심사에 있어서 배려하는 것과 동시에, 농박 등에 있어서의 고용 기회의 확보에 의해 여성 활약의 장을 제공한다. 그리고 신규 취농자 육성 종합 대책에서 경영 발전 지원 사업 취농 후의 경영 발전을 위해, 현이 기계·시설 등의 도입

을 지원하는 경우, 현 지원 분의 2배를 국가가 지원한다. 채택시에 가족경영협정 등에 의해 경영 방침, 역할 분담 등의 서면 체결이 있는 경우에 배분 포인트를 가산·지원 체제 구축 사업 지역의 취농 상담 체제 정비, 신규 취농자의 기술면 등의 서포트, 실천적인 연수 농장 정비 등을 지원함. 여성 등용의 목표·대책 계획을 설정하고 있는 경우 배분 포인트가 가산된다.

일본의 ‘가족경영협정’은 가족 농업 경영에 접하는 각 세대원이 의욕과 해 보람을 가지고 경영에 참가할 수 있는 매력적인 농업 경영을 목표로, 경영 방침이나 역할 분담, 가족 모두가 일하기 쉬운 취업 환경 등에 대해서 가족 간의 충분한 토론을 기반으로 약정하는 것이다. 2017년 3월 31일 기준으로, 가족경영협정 체결 농가수는 57,155호임. 전년 대비 758호(1.3%) 증가했다. 농산물의 판매 금액이 큰 농가일수록 가족경영협정 체결 비율이 높다. 이 가족경영협정의 목적은 농업 경영 목표와 가족 목표를 동시에 실현, 워크·라이프·밸런스의 확립, 파트너십 경영에 의한 경영 발전, 경영내용·경영목적·가족의 목표 시각화, 차세대 육성, 경영 계승의 틀, 농업의 역할 분담·가사의 역할 분담, 사회 참여, 취미 등, 경영 방침, 경영 회의, 휴일·근무 시간·수익 분배 등의 취업 조건, 자질 향상 등, 경영 자원 데이터의 시각화, 자금 계획, 농업 경영 발전 계획, 생활 설계 등이다. 가족 경영 협정서에 포함시키는 주요 내용은 목표, 경영 계획·경영 방침, 경영의 역할 분담, 보상·수익 분배, 근무 시간, 휴일, 생활의 역할 분담, 복리후생, 자질 향상, 경영 이양, 그 외 필요한 사항, 체결 연월일, 협정자, 입회인 등이다¹⁾.



자료 : <https://hojin.or.jp/files/standard/04kazokukeiei.pdf>

[그림 1] 일본의 농산물판매액 대비 가족경영협정 추이

2.2 일본 오사카 농업 특징

오사카 농지의 약 30%가 시가화 구역내에 있고, 개개의 경영 면적이 작고 다양한 품목을 집약적으로 생산하는 시설 원예 등의 농업 경영이 활발하다. 오사카 농업의 성장을 위해 농업 경영자의 경영 능력의 향상, 농업 판매액의 확대 등을 도모하기

1) <https://www.maff.go.jp/j/keiei/jyosei/attach/pdf/yosan-5.pdf>

위해, ‘오사카 아그리아카데미’ 경영컨설팅 프로젝트 등을 실시하고 있다. 2020년 오사카 농가인구는 20,813호로, 지난 20년 간 30.1% 감소함. 같은 기간 동안 자급적 농가는 15,189호에서 13,400호로 11.7% 감소하였다. 2020년 오사카 농업경영체는 7,673경영체이고, 이 중 법인경영체는 97경영체임. 한편 오사카 내 총 7개의 집락영농이 있다(일본 전체 14,832 집락영농).

오사카의 주요 농산물 생산액은 채소가 45.3%로 가장 많고, 이어서 쌀 20.9%, 과수 20.9% 순으로 많다. 쌀 생산액은 2005년 22.6%에서 2020년 20.9%로 감소했고, 채소 생산액은 같은 기간 동안 42.5%에서 45.3%로 증가함. 반면 화훼는 같은 기간 동안 7.1%에서 4.2%로 감소하였다.

한편 오사카 여성농업인 대상 지원사업을 살펴보면, 전국에 2,905명의 여성농업위원이 있고, 오사카에는 77명이 있다. 오사카 여성농업위원은 상근이사 1명, 비상근이사 19%, 감사 22%이다. 2000년 이전에는 생활개선, 공부회를 운영하고 있다. 2000년부터는 6차산업화 등 지원 확대하고(가공, 판매, 레스토랑 등), 가족경영협정제도가 보편화되었다. 그리고 여성농업PJ를 통해 여성농업인과 기업 간 정보 교환, 여성농업인의 아이디어를 기업이 사업화하고 있다.

[표 1] 일본 오사카 농업종사자 및 인정농업자 수

구분	전국	오사카	순위
기간적 농업종사자	1,363,038명	8,326명	46
남	822,144명	5,562명	46
여	540,894명	2,764명	47
65세 이상	69.6%	73.6%	-
인정농업자	233,806경영체	993경영체	47
법인	26,080법인	59법인	46
총 인구수	127,094,745명	8,839,469명	3

자료 : https://www.maff.go.jp/j/kanbo/tiho/attach/pdf/todouhukun_gaiyou-98.pdf

3. 일본 오사카 청년여성농업인의 영농실태

3.1 조사 개요

본 연구에서는 일본 여성농업인 대상 주요 정책이나 사업들이 기초 지자체에서 실행되는 과정 및 사업 추진 상의 애로사항 등을 조사하고, 일본 여성농업인 대상 생활 및 영농 지원 사업의 주요 성과에 대해 면담하였다. 조사기간은 ‘24.10.28(월) ~ 11.1(금)이다. 본 연구의 사례지역인 일본 오사카 부는 농지 경영 면적이 농가당 0.36ha에 불과하지만, 고수익형 도시농업이 발달한 지역이다. 따라서 오사카의 농업은 적은 농지에서도 높은 수익을 얻을 수 있는 농산물이 많이 재배되고 있어 본 연구에서는 오사카를 사례 지역으로 선정하였다.

3.2 A 여성농업인(87년 생)의 영농 실태

이 여성농업인은 2023년 주말체험농원을 시작하였다(이벤트 50회, 방문 총인원 600명, 재방문율 80%). 2024년 MALU팜 회원제 시작하였다(어른 40명, 초등학교생 14명, 기타 21명 등 총 75명). 2024년 동아리 활동 시작 포테이토부, 쌀쌀 클럽, 당근 클럽 등 총 45구역 매진되었다. 특히 “나의 밭이 재해 시 피난의 장소”가 되도록 밭의 활용도를 높이고 있다. 부모님이 농사 짓고 있어서 농지는 구입하지 않았고, 창고, 농기계 구입 시 클라우드 펀딩을 통해 조달함. 파종부터 수확까지 일괄 체험할 수 있는 농장은 많지 않다. 면담자의 체험농장에는 10세 미만 자녀가 있는 부모, 55세 전후 노인들이 방문하고 있다. 주요 애로사항과 극복 방법은 면담자의 시간을 체험농장에 주로 할애하고 있다. 그리고 자원봉사자 도움을 받고 있다.

3.3 B 여성농업인(83년 생)의 영농 실태

2019년 독립 영농 시작하였다(현재 6년차). 총 150a 경작함(모두 임차. 이 중 무화과 30a). 주요 재배작물은 무화과, 콩, 당근, 방울 토마토, 주키니, 저농약 벼 등 다양하다. 재배작물 선정 기준은 노지 재배이고, 장기간 수확이 가능해야 한다. 그리고 5년 동안 실험을 거쳐 확정된 품목을 선정하고 있다. “내가 재배하는 작물은 스스로 알아서 판매한다.”

주요 판매처는 소규모 소매점, 도매업자, 레스토랑 약 50%, 개인 고객(직접 판매, 온라인) 약 20%, 직매장 약 20%, 기타(이벤트 등) 약 10%이다. 판매처에서 재배 의뢰한 작물을 심을 때도 있다. 그리고 밭에서 완숙 상태까지 두고, 바로 오늘 먹을 수 있는 상태에서 판매하고 있다. 소비자 중에서 주말 체험농장으로 부족해서 자원봉사하고 싶어하는 사람이 많음. 2023년 총 280명 자원봉사자가 방문하였다. SNS를 보고, 농장의 채소를 구매한 고객, 거래처 관계자, 오사카부의 추천, 농업 희망자 등으로 다양. 남성과 여성 4 : 6이다. 농장 홈페이지에 자원봉사자 전용 사이트 만들어서 운영하고 있다. 주요 애로사항과 극복 방법은 체험하러 오는 사람 모집이 힘들었음. 이를 극복하기 위해 체험료를 지불할 만큼 매력적인 농장으로 만들고 있다.

3.4 JA이즈미노의 여성농업인 대상 농산물 판매실태

JA이즈미노는 조합원 수 44,264명(이 중 준조합원 37,212명)으로, 조합원 조직은 출하조합(출하부회) 11조직, 실행조합, 청장년회, 아사이랜드 출하협력회, 여성회 20지부가 있다. 주식회사 JA팜 이즈미노는 2011년 4월 아사이랜드를 개설하였다(농산물 직판장, 가공시설, 교류시설 등을 갖춘). JA이즈미노는 도시부에 위치해 금융사업과 농업사업 비율 7 : 3 이다. JA이즈미노의 영농비전은 ‘농업에서의 평생 현역’, ‘활력’, ‘즐거움’의 발견과 농업소득 안정적 향상임. 이를 통해 농업인의 소득증대, 농업생산의 확대에 의한

지역 농업의 진흥을 도모하고 있다.

JA이즈미노의 시민농원은 농업 관심과 이해를 통해 수확의 기쁨이나 음식의 중요성을 체험을 목적으로, 농지 대출법에 근거한 임대 농원이다임(1인 1구획). 연간 임대료 11,000엔이다(1区画 = 4.00m×5.00m = 20.00m²). JA 관내에 거주하는 20세 이상인자로, 희망하는 농원에 도보 또는 자전거로 다닐 수 있는 자가 임대가능하다.

JA이즈미노와 지자체는 농업정보 교환, 신규취농 육성, 새로운 농산물 출하 등을 협력하고 있다. 일례로 젊은 여성 유입 정책으로 젊은 사람 대상으로 하는 강습 진행하고 있다. JA이즈미노가 운영하고 있는 영농센터는 선별, 출하, 직매장 설립시 설립비의 50%는 정부가 보조했다. 이후 운영은 자체 자금으로 하고 있다. 도시부와 가까워, 어떤 작물도 잘 팔릴고 있고, 직매장의 80%는 이 지역에서 재배한 작물이다. 여성농업인은 꽃, 된장, 콩, 무화과, 채소 등을 주로 재배하고, JA이즈미노의 아사이랜드(직매장)에 판매하고 있다. 가족경영협정한 여성농업인은 농산물 출하할 때, 여성농업인이 출하할 때 본인 이름으로 출하하고 있다. 단, 가족경영협정을 하면 남편에게도 판매액의 일정 비율을 줘야 한다.

4. 요약 및 결론

일본은 쌀 농업에서 중형 기계 체계의 실현, 농업경영의 개선과 향상을 위해 농산물 가공 및 유통 주목, 농업의 6차산업화 추구, 환경친화적 농업, 시민과 함께 하는 농업(커뮤니티 농업) 관심 증가, 식품 안전과 안심, 지역 생산과 소비, 식생활 교육 등에 대한 관심 증가, 농협을 기반으로 한 농산물 직매, 가공, 복지 활동, 고등교육을 받은 유능한 여성이 증가하였다. 일본의 여성농업인 대상 정책과 사례분석 결과를 요약하고 시사점을 제안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농업경영 여성을 위한 향후 과제에는 남녀 공동 참여, 여성을 중요한 역할로 인식할 필요가 있다. 이를 위해 가족경영협정제도 이용도 고려할 수 있다. 그리고 6차 산업에 여성 역할 넓히고, 경영에서 여성 역할 강화가 필요하다.

여성농업인이 참여할 수 있는 연수회 만들고, 적극 참여할 수 있는 분위기 조성이 필요하다. 그리고 여성지원을 위해 들녘 화장실도 중요하다.

둘째, 생산력 측면에서는 작지만 농촌 유지를 위해 중요하다. 작은 규모에서 재배한 농작물 판매가 가능하도록 직매장이 중요하다. 또한 자신이 활동할 수 있는 직매장의 만들어져서 즐거움을 느끼며, 농촌에서 살 수 있도록 섬세한 대책이 중요하다. 작은 생산 여성농업인을 위한 복지가 중요하다.

셋째, 여성농업인의 영농 지역 특징을 적극적으로 활용할 필요가 있다. 오사카 청년여성농업인들은 도시농업이라는 특수한 환경 활용하고 있다. 소비자와 생산지가 가깝고, 인구가 많아 판로 확대 용이하다. 지역과 연결되어 농업자원봉사, 임대농원, 농업 이벤트 등 다양한 활동을 하고 있다. 그리고 자원봉사 왔던 사람들이 재방문하고 있고, 모집되는 자원봉사자로 농장 운영도 가능하다. 따라서 우리나라 여성농업인이 경영하고 있는 농장은 대규모의 농장과 소규모의 체험 농장 등으로 구분하고, 소규모 체험 농장의 확대·보급을 통해 농촌지역으로 생활(관계)인구 유입도 가능할 것으로 사료된다.

참고문헌

- 原(福与)珠里(2009), 「農村女性のパーソナルネットワーク」, 中央農業総合研究センター.
- 原珠里(2010), 女性農業者のキャリア形成の特徴, 『関東東海農業経営研究』 100 : 105-110.
- 原珠里·西山未真(2015), “女性農業経営主の就農経緯と経営の特徴に関する試論”, 『農村研究』 120 : 1-14.
- 佐藤真弓(2021), “女性農業者の経営参画に関する研究動向：経営参画要因の整理と参画促進に向けた課題”, 『Primaff Review』 102 : 8-9.
- https://www.maff.go.jp/j/kanbo/tiho/attach/pdf/todouhukeng_gaiyou-98.pdf

본 연구는 한국농어촌공사 농어촌연구원(2024)의 연구를 수정 및 보완한 것이다.